

To. Room No 919. Yang Mr Kang.

김복선씨

헝리사 오쿠야마 요코

아버지: 밀림에서 사신을 헤매며

한쪽 부모를 여의고

나는 전라남도 강진군 학령리에서 1926년 2월 20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주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보통학교에 진학한 것이었다. 형제는 딸 셋으로 내가 막내였다. 나는 큰집 식구들과 함께 광주로 이사하여 보통학교에 4학년 때까지 다녔다. 큰아버지께서는 내가 졸업한 후에 이사가자고 했지만 보통학교에 다니 학비를 대기 어려워 다시 강진으로 이사를 했다. 그때는 내 나이 여섯살이었다.

큰 아버지는 자작농이었다. 큰 언니는 출가시키고, 작은 언니는 해남의 고모집으로 모셔갔다. 아도 시집보내기 위하여 여러 번 선을 보았으나 마을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시집을 가지 못했다.

돈 빌려 일본의 공장에 가자고

1944년 3월초쯤이었다. 이때 나는 열여덟살이었다. 그 즈음 큰아버지는 "요즈음 저녁을 굶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큰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오시더니 나한테 빨리 숨으라고 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 있었다. 한 1주일 동안 아침밥을 먹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후 2,3시까지 숨어 있었다.

그날도 숨어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다락방에서 내려와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국방식 국민복을 입은 30대 일본인 1명과 양복을 입은 40대 조선인 1명이 사람문을 차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둘 다 일본말을 잘 하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 조선인 남자는 (죄지)대 일본성(조카오까) (卷岡)라 했다. 내가 죄지한테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다. 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죄지는 나한테 밥을 빨리 먹으라고 했다. 9월이니까 방문은 열려 있어서 내가 있는 방에서 파두어 걸터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잘 보였다. 내가 점심을 다 먹자 두 사람은 나의 손목을 잡고 나가자고 했다. 나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물었다. 죄지가 "너 두번이 하고 싶지? 일본에 가서 1년 동안만 공장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자" 하고 말했다. 나는 "안 가면 안돼나요?" 하고 물었으나 죄지는 안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나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다.

30분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갔다. 그들은 광주의 간
판이 있는 어린이숙 비슷한 곳으로 데려갔다. 들어가니까 이미 4명의 처녀가 와 있었다. 나주,
보성, 여주에서 온 처녀들이었다. 나와 같은 혼아가씨들이니까 금방 친하게 됐다. 거기에서
하루밤을 잤다. 이른날 광주역까지 걸어 나와서 그 일본인과 최씨를 따라 화물칸을 타고 서
창으로 갔다.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또 화물칸을 타고 갔다. 그 기차에는 일반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타고 있었다.

기차에는 함양소 비슷한 곳에 들어갔다. 방이 두배 가 있었다. 한 방에 여자들이 20명 가
량 있었다. 처녀들도 있었고 애기 엄마도 있었다. 경기도와 경상도 처녀들도 있었는
데 전라도 처녀들이 제일 많았다.

광주(光州)라는 이름은 인천에 가서 내가 직접 지었다. 광주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지었
다. 거기에다(순음)란 성은 장진에서 살고 있었을 때부터 사용했었다.

그 사람들은 인천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공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가면 여려가지
일만 받으니까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다.

일본에서 준비물을 받았다. 검정색 몸에 2벌과 블라우스 2벌. 그리고 속옷을 2벌씩 받은
다. 블라우스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나는 원래 하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얀 것으
로 골랐다. 집에서 끌려 갈 때는 검정 몸매와 긴 블라우스를 입고 갔다. 나는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은 개다를 신었다.

인천에서 1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신체검사를 받았다. 일본인 의사와 조선인 의
사가 우리를 각층에 정진기를 대고 검사를 했다. 목도 보았다. 산부인과 검사는 받지 않았
다. 눈 밑에 피가 나쁘다는 진단이 떨어졌다. 나는 키가 160센티미터이고 몸무게는 55킬로그램
정도였다. 열세살 때부터 필경이 있었고 숙성했었다.

인천에서 20명씩 작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9월 20일경 부산에 도착했다. 어느 수용
소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 수용소는 창고같이 보이는 콘서트 건물
이었다. 부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산 수용소에서는 일본 군대로부터 주먹밥 한 덩어리씩을 받았다. 거기에서도 우리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일본어 가야 공장이 있지. 부산에서 어떻게 조선 람을 많이 쓰
니까"라고 했다.

검사는 일본 군인이 하지 않고 조선 사람이 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 오는 등 감
시가 매우 심했다. 그 조선 사람도 군복을 입었었다. 일본 군인들과 그 조선 사람을 자기들
이라는 일본말을 했다.

부산에서는 한 1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다. 9월말경 수용소에서 트럭을 타고 부두로 나와
어디로 갔다. 약 40명의 여자들은 오사카로 가고 약 20명의 여자들은 시코노세키로 갔다.

나는 오사카로 가게 되었다. 오사카에서는 일본군 무대에 있는 수용소로 들어갔다. 위안소
로 들어갔다.

우리는 40명 이외에 오사카에는 이미 50명 가량의 조선인 여자들이 와 있었다. 오사카에
1주일 동안 있었는데 일본 공장에는 보내주지 않았다. 최씨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했다. 우리는 공장에 가려고 오사카까지 왔는데 공장에 안 보내주고 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언저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하니 1주일을 기다리면 배가 온다고 했다. 그런데 1
주일이 지나도 배와 가짜를 기다렸다.

1945년 8월 15일

1944년 10월 조선이나 중순 오사카에서 백 명 가량 되는 여자들이 수 큰 5층 배를 탔다. 배 이름은 아라비라마루였다. 아라비라는 가타카나로 쓰여져 있었다. 1, 2, 3층까지 여자들이 탔다. 나는 2층에 탔는지 3층에 탔는지 모르겠다. 도중에 오키나와에서 60명 가량의 여자들이 하강했다. 탕치는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란 이동했다. 육군 군인들이 같이 이 배를 탔다고 하였다.

10월 17일 갔다. 10월말이 된 것 같다. 사이공에 가니까 그곳 사이공 수용소에도 여자들이 수 큰 배에 탔다고 하였다. 합해서 60여명이 탔다.

미국에서 미국과 미토소 위안소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시가 매우 심해졌다. 화장실도 문을 닫아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잠잘 때도 와서 보고 갔다.

사물을 잊은 일이 제일 심었다

소요 시간이었는데, 우리 20명은 버마의 랑군로 갔다. 다른 두 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국한 장전에서 끌고 왔던 일본인도 칩시다 랑군으로 같이 갔다.

랑군은 11월 조선인가 중순에 도착했다. 그 곳은 아주 더웠다. 배에서 내리니까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에는 일본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랑군에서 그 트럭을 타고 두세 시간 정도 계속 한길로 북쪽으로 가니까 위안소라는 간판이 나오니까 같이 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했다. 아주 험한 산속이었다. 일본 부대에서는 병정들이 나와서 어소 소리도 났다. 부대에서 여자들이 먹을 20명분의 밥을 한꺼번에 갖다 줬다. 위안소는 미안소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식당에서 버마 여자 2명이 일하고 있었다.

위안소 건물은 두층으로 되어 있어 있었다. 그 가운데 길이 있었다. 한 줄에 방이 10개씩, 모퉁이 방도 있었다. 그 위안소는 새로 지어져 준비되어 있었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 식당과 세면소가 2개씩 있었다. 각 방은 다다미 1장 정도의 크기로 벽과 바닥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다. 방에는 담요 2장이 있었다. 방 20개 중에서 나는 식당에서 가까운(7~8미터 거리) 3호실로 들어갔다. 번호 밑에 비즈로라고 써놨다. 방 안에는 기분이 처져 있었다. 우리 여자들은 보파리를 하나씩 갖고 있었다. 거기는 토기가 있었다. 도망가고 싶어도 감시가 너무 심해서 도망가지 못했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때 처음 남자를 접했다. 최초로 겪은 사람은 일본대위였을 정도의 병사인데 오사카 말을 썼다. 들어 오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청했다. 수술을 많이 했으니깐 빨리 해야 한다고 지퍼만 열고 했다. 피가 많이 났다. 다리를 들려도 할 때는 다리가 아렸다. 갑자기 많은 남자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배가 너무 아렸다. 리치 수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고, 병이 안癒을 버니까 걱정말라. 아픈 것만 조는 걸으면 된다고 말했다. 젊은 병사들은 흥분하여 잠하자 얼마 안 되어 끝났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장사들을 살펴보고도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1주일 동안은 너무 지랄러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7시부터 아침밥을 먹고 9시부터 일본 병사들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 3시까지는 병사, 3시부터 7까지는 하사관, 7시부터 10까지는 중령들이 왔다. 장교들 중에는 밤에 자고 아침 6시 30분쯤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병사는 하루에 3번씩. 날아 갈 것 같은 안달미로 소금물을 넣어 맛은 주먹밥과 단무지

원장국을 먹었다. 다음 날에는 밖에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병사들은 장 목격자 들을 여러 가지로 따지고 있었다. 신을 보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신도 안 보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 다음 날에는 안 갔다. 걸터놓은 캄프에서 들은 말에 묵묵을 했다.